東大時報
編輯兼發行人 白性郁
印刷人 金鎭福
發行所 서울市中區筆洞3街26 東國大學校內 社報時報大東
電話 1685·1686
(週刊) (四十二號) 檀紀4289年 9月17日發行
(圖一五部一)

本校九年度獎學生選拔了

10日學處長會議서 最終決定

平均八十五點以上이 基準

四二八九年度本校獎學生選拔은 지난十日 學處長會議室에서 開催된 學處長會議에서 慎重審査를 거쳐 獎學生十二名의 選拔에 最終決定을 보았다 即 同審査는 本校獎學生選拔要綱에依 據한것으로 前年度二學期成績과 該年度一學期成績 平均 八五點以上 取得者에 限하여 審査로 選拔된것인데 獎學金給與期間은 今二學期에서來 年一學期에 걸친滿一年間인것이다 그런데 同 獎學金給與對象者에 對하여는 學校當局에 納 付케 되어있는 登錄金中 授業料및 後援會費 가 免除되는 特典이 附與되는 反面에 學費 團費·新聞代·實習費·學會費等 都合二十五百 圓은 從來와같이 納付해야되는것이다 한편 同 學處長會議에서는 學生들의 學究熱을 높이기 爲하여 該獎學金給與者數를 無制限으로 함것 에 合意를 본바 있는데 同조置는 從前 選 拔要綱인 除限制의 盲點을 止揚하고 成績優 秀者 (平均八五點以上)에 對하여는 無制限으로 獎學金을給與함것을 同要綱에添書케되 同 會議에서 審査結定된 八九年度 本校獎學生名 單은 다음과같다

▲佛三 金在鎬 (平均八十六點)
▲哲四 李發善 (平均八十五點)
▲國四 郭義順 (八十九點)
▲國四 崔昌德 (八十八點)
▲英四 金鳳性 (八十六點)
▲史二 高完魯 (平均八十五點)
▲法二 崔秀洙 (八十九點)
▲經四 淺昌源 (八十七點)
▲農三 李天九 (八十六點)
▲農四 朴元漢 (八十七點)
(以上十二名)

登錄期日嚴守等

昨十四日 鄭學生處長談話

近間 巷間에 敎集된 『在學者 徵集』問題로 말미암아 在學生은 걱정지않게 動搖하고 있으며 學業을 陳怒히하는 傾向이 있는이때 十四日 學生處長 鄭斗石敎授는 概略다음과같은談話가 있었다

在學生 徵集에 對해서는 法的 成文化의段階에 놓여있음은 누구나 정작하는 問題이지만 사즉 完全結末이라고는 볼수없는 것이다 한편 完全落着을 본다하드라도 在學者 全員이 一齊히 徵集되는것은 아닌만치 徵集될때까지는 學生의 身分이 너 만치 學業에 陳怒히 있거나 學生本分에서 離脫되는일이 없어야 國家方策에 即應해야 할은 없은 學徒의 銘心할바이나 徵集될때까지는 마땅히 學究硏鑽에 稱進하기 바란다 登錄期限嚴守 그리고其他 協同的인 秩序維持를 以 喚起시키는바이며 一切의 輕擧妄動이나 自棄自棄는 勿論삼가기를 要望하는바다

(사진鄭斗石교수)

諸證明書 發給

試驗期間中保留

지난十一日 敎務處 關係者가 經費절약바에依 하면 今試驗中에는 一切의 證明書發給을 同 期間中에 保留하여 保留 하기로 決定하였다한다 諸處事는 試驗에關한 諸種事務에 徵臣을 期 하기 爲한것으로 特別 한境遇 以外는 證明書의 發給을 하지않기로 한것이나 試驗完了 同時에 從前과같은 事務가 進行될것이다

新校舍 內部修理된 13個에

一部收容

今第一學期試驗期에 亘해서 于先 內部修理가 完了된 新築校舍의 一部를 使用하게되었다。 同講義室은 倚今最終 內部修理를 雅淡하게한 十三個講堂으로서 그配置狀況을보면 一層에三、二十四、二十五、二十六 二十七、三層에 十九、二十、二十一、二十八、二十九、三十講義室等으로 配定되어있는데 이 內部修理를 倚今最終 十三個講堂으로서 그配置狀況을보면 一層에三、二十二、二十三、二層에 二十四、二十五、二十六 二十七、三層에 十九、二十、二十一、二十八、二十九、三十講義室等으로 配定되어있는데 이

景玉驗試의層三舍校築新=眞寫◇

滯美中인同門白大鉉氏에

美·農學博士學位

八七年度九月부터 美國「루이지아나」州立大學校「農工大學大學院研究部」로 在任中이던 同門 白大鉉氏는 其間研究에 盡力하던 결과 지난八月初에 P.H.D(農學博士)學位를 授與받았다는바

白大鉉氏는 四二八五年度 本校 英文科를 卒業한 後 美國멕사스州立農工大學大學院에서 農工敎育學을 硏究한바 지난 八七年度八月五日 同 學校 學位를 授與받았다는바

四個大學 一齊

허 試驗中

自九月十二日 至九月二十七日

지난十二日부터 오는 二十七日까지에걸쳐 八九年度 第一學期試驗을 四個大學 一齊히 實施하고있다

지난 十日 午前十時부터 本校 學護團室에서는 學護團幹部會議가 盧善景(學護團副委員長)君의司會로 開催되었다

開校記念各種行事計劃

10日學護團幹部會議서論議

지난十一日 敎務處 一部學生處長 鄭斗石敎授는 今年度 開校 記念을 前後하여 全國 明女高等學校體育大會를 開催할것과 其他 行事 를 갖일것이 合意를 보았는데 學期試驗이 終了됨과 同時에 計劃이 準備委員을 構成하여 積極的인 推進키로 決定하였다한다 同會議專日程은 開校 記念日第新築校舍落成記念行事 同記念出版物其他 學校當局側의 建設事項으로 되어있는데 同記念出版物 關係는 學護團豫算 內內西大門 麻浦 兩刑務 所를 見學할것等을 提議한바 있었고 그런데 決定 그런데 同博士學位授與消息은 注意事項 등 敎 納者가 남어있는 本校 文理科大學長崔鳳 守授敎에게 傳達된것이다 新校舍 使用에要注意 12日敎務課長表明 今般 實施키로 있는 大學院에서 首位로 卒 業케됨으로써 美國學界의 一目을 獨占한바 있었던것이다 同 博士 學位授 同代金의 未 納者는 速 納하여 學生 各者 細心한 注意力을 傾注하여 주기 바라며 現場作業에 妨害되지않도록 特別留意 하기를 바란다고 强調하바있다

爆發前夜의「스에스」運河問題

英·佛兩國은 現段階를 慎重檢討

「이든」英國首相은 十到達하였는가에 이에서 오로 運河協會는 그性格 으로서 調査에 「넬슨」大 百相이 領導하는 五個 二日現在 夏期休暇을위 는 아직알길이없다 그러나 英國首相 「이 지스」委員團에 依해서 「낫셀」에게서 緊急召集되고 「스에스」運河 國有化함으로서 節成된 國際會議에 依해서 提示되고 「스에스」運河 運河水路案內人이 一齊히 國會의 獨斷을 强行하고 辭職한다는 事實이다萬 이에 대한 英及側의反 應與否에 따라 다음 措 置를 講求하자는 方同 에스」運河의 運營이 廢 으로 나가고 있는듯하다 비狀態에 빠진것만은 事 그다음 段階에 取할 實이며 國際 力行使가 包含되어있음 의 事態가 爆發할可能 性도 없지않다 英及이 勿論이나 英·佛兩 그에對한 措置로서 如何 國은 當初부터 武力使 한 態度를 取하는가에關 用만이 問題를 解決할 心事이며 「낫셀」이萬若 수있는 一方 方法이 西方側水路案內人들에대 明白하며 그들은 處理하였음은 해서 害를 加하는等의 하여 그에 對 裁判을 擁止하는데 滿 和的의解決을위한 可能 國은 國際民保護를 위 揚一致의合意를보고 今 날 學界부터 學報發刊과 其 他硏究活動에 主力할것 이라 決議한바 있었던것 이다

한편 이날會議에서는 刑政實習을 目的으로 市 內西大門 麻浦 兩刑務 所를 見學할것等을 提 議한바있었는데 會議는 同午後二時頃 閉會되었다

「藏外襍錄」第二輯

九月末頃出刊

本校佛敎大學內 佛敎 編輯中이던 藏外雜錄第 二輯을 即刻에 回附하 여 있는바 今月末頃에는 出刊될것이라한다 그런데 이번出刊되는 藏外雜錄에는 東師列傳 이 수록될것이다 同編輯은 本校佛敎大 學長 鏡明基敎授의 指 揮下에 推進되었던것으로 禹貞相·安啓暎兩講 師가 直接編輯을 擔當 하고있다

該叢書의出刊은 關係 學界에 多大한 寄與가 될것이며 同第一輯은이 미 지난五月初에 出刊 된바있다

「東國文學」第二輯續刊

尙今原稿蒐集中

昨年度 初秋에發刊되 여 全體文壇의 關心事 이던 東國文學 第 二輯이 가까운將來에 刊된다

同叢刊에앞서 發刊된 李內曦先生을 비 롯한 諸先輩及同關係在 學生들에게는 數次에걸 처 會合을 갖었던바있 는 本校文理大 國語國 文學會를 中心으로 第 二輯叢刊에 尙今 原稿 蒐集을 行하고 있는것 이다

即 創刊號는 發行된 昨年初秋에는 同叢刊資 金을 諸先輩側의 贊助 二輯이 早期에 出刊 되는데 이번 刊行에는 同 二輯에는 名實共히 國 語國文學會會誌의 性格 을內包하고있는것이다 이번編輯計劃에依하면 國文學全般 에 걸친 硏究論文과 現代文學部門으로 꾸어 있는것이다

그런데 同誌는 季刊 으로 其間 資金難때문 에 正常的인 發展을걸 수지못하였던바 이번 刊行에는 一致되어 學校當局의 協助를 合意되었다 同記念出版物은 事 業의 一部로 期待된다 同 第二輯의 原稿蒐 集은 今月末日로 되어 있으며 來十一月初旬頃 에는 發刊될것이라는 한편 同關係者들은 學 校當局과 學友들의 熱 意있는 援助를 期待한다고 있다

兩刑務所 見學

法學會에서

지난六日 午前十一時 부터 本校法學會서는約 三時間에걸쳐 市內西大 門·麻浦兩刑務所를 見 學하였다

그런데 同見學의 目的은 刑政實習을 爲한 一部로써會員 一五〇餘名이 이에參 加한것이다

이날 見學者 完了한 法學會員들은 市內 洗劍亭에서 觀覽을 畢 後 法學會에서 簡單한 座談會를 갖인바있다한다

「藏外襍錄」第二輯

九月末頃出刊

지난十日 午前十時부터 本校 學護團幹部會議가 盧善景(學護團副委員長)君의司會로 開催되었다

法學會 時局總會

模擬裁判廢止 合意

學報發刊에

지난五日午後一時 第一講堂에서는 法學會臨時總會가 六十餘會員의 參席한 가운데 開催되었다

同臨時總會는 同學會 長 金振君의司會로 年 中行事의하나인 模擬裁 判開催에 關한것과 判開催되고 있는 模擬裁 裁判等 擁止하는데 滿 場一致의合意를보고 今 學報發刊과 其 他硏究活動에 主力할것 이라 決議한바 있었던것 이다

한편 이날會議에서는 刑政實習을 目的으로 市 內西大門 麻浦 兩刑務 所를 見學할것等을 提 議한바있었는데 會議는 同午後二時頃 閉會되었다

學護團諸規程

中央學護에서審議改廢

지난九月十日자로文敎 部에서發表됨에依하면 中央學徒護國團指導委員 會및常任委員會에서는 그 間의 學護團諸規程을 改 正하였다고한다 諸規程은 從來의 機構簡素 化및 豫算減에 따른 編成의 合理的配置이바 正되고있는 所謂 敎養科目과 必 須·選擇科目을 一見컨대 不必要 할程度로 共通敎養科目의 過剩 이라는傾向을 볼수가있는데 即 卑近한 一例로서는 A科·B科學 生과같이 X學槪論을 同一한敎 授가 同一한內容으로 講義한다 는것은 不快하다고들 往往히 非 難만을내리고 있는데 決코 그 러한 非難을 모다 받아드릴수 는 없다치드라도 우리自身을 深 思하게 反省해야될것이 아닐가 一部學生들은 工夫가 못대로되지 않는다는 理由를 社會環境이 나쁘다거나 學生에게對한 時典이 없다는등 몇가지의 口實을 부치고 自己들의 工夫하지않는 態度를 合理化하려고들하는데 個中에는 首肯될만한點도 決코 不無이기는하나 畢竟安當性이 없다고는 생각할수가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工夫해야할것인가하고 생각해본일이있으는지 있으로만 知性 等云云하고 돔더工夫해야겠다고들하면서 어째서 平素학學에 思實치가 않은지에 對하여는 아무런方法으로라도 理解할수가 없는것이다 高學學校를 거쳐大學에 入學되면 벌서많은 工夫를한것처럼멋만 늘어서 자칭하면敎授陣이나 當局에不平不滿을 늘어놓는것이깨끗인데 反하여 지멸해볼두고 보아도 어떤學生들은 꼭하나깨끗證校한일조차없는것을 보았는데—勿論 이런學生은實로 極少이기는하나—그리고도 四年後이면 빗댓긴 學士學位를 받아가지고 이社會에서 有益한 國民의한사람이 된듯이 槪念을내리고 있는데 決코 그 誤謬이라고 往往히 非難을 받아드릴수 는 없다치드라도 우리自身을 深 思하게 反省해야될것이 아닐가 一部學生들은 工夫가 못대로되지 않는다는 理由를 社會環境이 나쁘다거나 學生에게對한 時典이 없다는등 몇가지의 口實을 부치고 自己들의 工夫하지않는 態度를 合理化하려고들하는데 個中에는 首肯될만한點도 決코 不無이기는하나 畢竟安當性이 없다고는 생각할수가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工夫해야할것인가하고 생각해본일이있으는지 있으로만 知性 等云云하고 돔더工夫해야겠다고들하면서 어째서 平素학學에思實치가 않은지에 對하여는 아무런方法으로라도 理解할수가 없는것이다 高學學校를 거쳐大學에 入學되면 벌서많은 工夫를한것처럼멋만 늘어서 자칭하면敎授陣이나 當局에不平不滿을 늘어놓는것이깨끗인데 反하여 지멸해볼두고 보아도 어떤學生들은 꼭하나깨끗證校한일조차없는것을 보았는데—勿論 이런學生은實로 極少이기는하나—그리고도 四年後이면 빗댓긴 學士學位를 받아가지고 이社會에서 有益한 國民의한사람이 된듯이 槪念을내리고 있는데 決코 그 誤謬이라고 往往히 非難을 받아드릴수 는 없다치드라도 우리自身을 深 思하게 反省해야될것이 아닐가 一部學生들은 工夫가 못대로되지 않는다는 理由를 社會環境이 나쁘다거나 學生에게對한 時典이 없다는등 몇가지의 口實을 부치고 自己들의 工夫하지않는 態度를 合理化하려고들하는데 個中에는 首肯될만한點도 決코 不無이기는하나 畢竟安當性이 없다고는 생각할수가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工夫해야할것인가하고 생각해본일이있으는지 있으로만 知性 等云云하고 돔더工夫해야겠다고들하면서 어째서 平素학學에思實치가 않은지에 對하여는 아무런方法으로라도 理解할수가 없는것이다 高學學校를 거쳐大學에 入學되면 벌서많은 工夫를한것처럼멋만 늘어서 자칭하면敎授陣이나 當局에不平不滿을 늘어놓는것이깨끗인데 反하여 지멸해볼두고 보아도 어떤學生들은 꼭하나깨끗證校한일조차없는것을 보았는데—勿論 이런學生은實로 極少이기는하나—그리고도 四年後이면 빗댓긴 學士學位를 받아가지고 이社會에서 有益한 國民의한사람이 된듯이 槪念을내리고 있는데 決코 그 誤謬이라고 往往히 非難을 받아드릴수 는 없다치드라도 우리自身을 深 思하게 反省해야될것이 아닐가 一部學生들은 工夫가 못대로되지 않는다는 理由를 社會環境이 나쁘다거나 學生에게對한 時典이 없다는등 몇가지의 口實을 부치고 自己들의 工夫하지않는 態度를 合理化하려고들하는데 個中에는 首肯될만한點도 決코 不無이기는하나 畢竟安當性이 없다고는 생각할수가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工夫해야할것인가하고 생각해본일이있으는지 있으로만 知性 等云云하고 돔더工夫해야겠다고들하면서 어째서 平素학學에思實치가 않은지에 對하여는 아무런方法으로라도 理解할수가 없는것이다 高學學校를 거쳐大學에 入學되면 벌서많은 工夫를한것처럼멋만 늘어서 자칭하면敎授陣이나 當局에不平不滿을 늘어놓는것이깨끗인데 反하여 지멸해볼두고 보아도 어떤學生들은 꼭하나깨끗證校한일조차없는것을 보았는데—勿論 이런學生은實로 極少이기는하나—그리고도 四年後이면 빗댓긴 學士學位를 받아가지고 이社會에서 有益한 國民의한사람이 된듯이 槪念을내리고 있는데 決코 그 誤謬이라고 往往히 非難을 받아드릴수 는 없다치드라도 우리自身을 深 思하게 反省해야될것이 아닐가 一部學生들은 工夫가 못대로되지 않는다는 理由를 社會環境이 나쁘다거나 學生에게對한 時典이 없다는등 몇가지의 口實을 부치고 自己들의 工夫하지않는 態度를 合理化하려고들하는데 個中에는 首肯될만한點도 決코 不無이기는하나 畢竟安當性이 없다고는 생각할수가없다

社說

勉學에對한 우리의反省

倭政下에서 배움에 굶주리든 우리들은 八·一五解放과 더불어 自由로운 學問의 硏究를 享有할수있다는 點을 누엇보다도 기쁘게 여겼던것이다 自由로운 學問과 知識의 効用은 新生韓國의 가장큰 課題이 었거니와 其後 全國的으로 많은 大學이 民族의 힘으로 設立되여 現在 全國大學에서 敎容할수있는 學生數는 實로 彭大한 數에 達하고있다

大學이란 알기 쉽게 말하면 學究에 熱있는 學徒 들이 一堂에 뭉여 優秀한 敎授 로부터 講義를듯고 學問의 硏鑽을 쉬히여 相互 切磋琢磨하는 배움의 殿堂이라고 할것인데 果然 우리네들은 그러한 배움의 길을 眞實하게 지켜왔는지 오늘날 社會人들은 자칭하면 요새 學生들은 工夫도안하고 素行도 옛날보다 못하다고들 往往히 非難만을내리고 있는데 決코 그 러한 非難을 모다 받아드릴수 는 없다치드라도 우리自身을 深 思하게 反省해야할것이 아닐가 一部學生들은 工夫가 못대로되지 않는다는 理由를 社會環境이 나쁘다거나 學生에게對한 時典이 없다는등 몇가지의 口實을 부치고 自己들의 工夫하지않는 態度를 合理化하려고들하는데 個中에는 首肯될만한點도 決코 不無이기는하나 畢竟安當性이 없다고는 생각할수가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工夫해야할것인가하고 생각해본일이있으는지 있으로만 知性 等云云하고 돔더工夫해야겠다고들하면서 어째서 平素학學에思實치가 않은지에 對하여는 아무런方法으로라도 理解할수가 없는것이다 高學學校를 거쳐大學에 入學되면 벌서많은 工夫를한것처럼멋만 늘어서 자칭하면敎授陣이나 當局에不平不滿을 늘어놓는것이깨끗인데 反하여 지멸해볼두고 보아도 어떤學生들은 꼭하나깨끗證校한일조차없는것을 보았는데—勿論 이런學生은實로 極少이기는하나—그리고도 四年後이면 빗댓긴 學士學位를 받아가지고 이社會에서 有益한 國民의한사람이 된듯이 槪念을내리고 있는데 決코 그 誤謬이라고 往往히 非難을 받아드릴수 는 없다치드라도 우리自身을 深 思하게 反省해야될것이 아닐가 一部學生들은 工夫가 못대로되지 않는다는 理由를 社會環境이 나쁘다거나 學生에게對한 時典이 없다는등 몇가지의 口實을 부치고 自己들의 工夫하지않는 態度를 合理化하려고들하는데 個中에는 首肯될만한點도 決코 不無이기는하나 畢竟安當性이 없다고는 생각할수가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工夫해야할것인가하고 생각해본일이있으는지 있으로만 知性 等云云하고 돔더工夫해야겠다고들하면서 어째서 平素학學에思實치가 않은지에 對하여는 아무런方法으로라도 理解할수가 없는것이다 高學學校를 거쳐大學에 入學되면 벌서많은 工夫를한것처럼멋만 늘어서 자칭하면敎授陣이나 當局에不平不滿을 늘어놓는것이깨끗인데 反하여 지멸해볼두고 보아도 어떤學生들은 꼭하나깨끗證校한일조차없는것을 보았는데—勿論 이런學生은實로 極少이기는하나—그리고도 四年後이면 빗댓긴 學士學位를 받아가지고 이社會에서 有益한 國民의한사람이 된듯이 槪念을내리고 있는데 決코 그 誤謬이라고 往往히 非難을 받아드릴수 는 없다치드라도 우리自身을 深 思하게 反省해야될것이 아닐가 一部學生들은 工夫가 못대로되지 않는다는 理由를 社會環境이 나쁘다거나 學生에게對한 時典이 없다는등 몇가지의 口實을 부치고 自己들의 工夫하지않는 態度를 合理化하려고들하는데 個中에는 首肯될만한點도 決코 不無이기는하나 畢竟安當性이 없다고는 생각할수가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工夫해야할것인가하고 생각해본일이있으는지 있으로만 知性 等云云하고 돔더工夫해야겠다고들하면서 어째서 平素학學에思實치가 않은지에 對하여는 아무런方法으로라도 理解할수가 없는것이다 高學學校를 거쳐大學에 入學되면 벌서많은 工夫를한것처럼멋만 늘어서 자칭하면敎授陣이나 當局에不平不滿을 늘어놓는것이깨끗인데 反하여 지멸해볼두고 보아도 어떤學生들은 꼭하나깨끗證校한일조차없는것을 보았는데—勿論 이런學生은實로 極少이기는하나—그리고도 四年後이면 빗댓긴 學士學位를 받아가지고 이社會에서 有益한 國民의한사람이 된듯이 槪念을내리고 있는데 決코 그 誤謬이라고 往往히 非難을 받아드릴수 는 없다치드라도 우리自身을 深 思하게 反省해야될것이 아닐가 一部學生들은 工夫가 못대로되지 않는다는 理由를 社會環境이 나쁘다거나 學生에게對한 時典이 없다는등 몇가지의 口實을 부치고 自己들의 工夫하지않는 態度를 合理化하려고들하는데 個中에는 首肯될만한點도 決코 不無이기는하나 畢竟安當性이 없다고는 생각할수가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工夫해야할것인가하고 생각해본일이있으는지 있으로만 知性 等云云하고 돔더工夫해야겠다고들하면서 어째서 平素학學에思實치가 않은지에 對하여는 아무런方法으로라도 理解할수가 없는것이다 高學學校를 거쳐大學에 入學되면 벌서많은 工夫를한것처럼멋만 늘어서 자칭하면敎授陣이나 當局에不平不滿을 늘어놓는것이깨끗인데 反하여 지멸해볼두고 보아도 어떤學生들은 꼭하나깨끗證校한일조차없는것을 보았는데—勿論 이런學生은實로 極少이기는하나—그리고도 四年後이면 빗댓긴 學士學位를 받아가지고 이社會에서 有益한 國民의한사람이 된듯이 槪念을내리고 있는데 決코 그 誤謬이라고 往往히 非難을 받아드릴수 는 없다치드라도 우리自身을 深 思하게 反省해야될것이 아닐가 一部學生들은 工夫가 못대로되지 않는다는 理由를 社會環境이 나쁘다거나 學生에게對한 時典이 없다는등 몇가지의 口實을 부치고 自己들의 工夫하지않는 態度를 合理化하려고들하는데 個中에는 首肯될만한點도 決코 不無이기는하나 畢竟安當性이 없다고는 생각할수가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工夫해야할것인가하고 생각해본일이있으는지 있으로만 知性 等云云하고 돔더工夫해야겠다고들하면서 어째서 平素학學에思實치가 않은지에 對하여는 아무런方法으로라도 理解할수가 없는것이다 高學學校를 거쳐大學에 入學되면 벌서많은 工夫를한것처럼멋만 늘어서 자칭하면敎授陣이나 當局에不平不滿을 늘어놓는것이깨끗인데 反하여 지멸해볼두고 보아도 어떤學生들은 꼭하나깨끗證校한일조차없는것을 보았는데—勿論 이런學生은實로 極少이기는하나—그리고도 四年後이면 빗댓긴 學士學位를 받아가지고 이社會에서 有益한 國民의한사람이 된듯이 槪念을내리고 있는데 決코 그 誤謬이라고 往往히 非難을 받아드릴수 는 없다치드라도 우리自身을 深 思하게 反省해야될것이 아닐가 一部學生들은 工夫가 못대로되지 않는다는 理由를 社會環境이 나쁘다거나 學生에게對한 時典이 없다는등 몇가지의 口實을 부치고 自己들의 工夫하지않는 態度를 合理化하려고들하는데 個中에는 首肯될만한點도 決코 不無이기는하나 畢竟安當性이 없다고는 생각할수가없다

燈下

가을은 大悟의季節

趙 基 明

스-뉴·쓰포스

圖書蒐集

第二訓練所에寄贈用

17日—30日限

公示

購讀料에關하여 以後定額納入하지 않는 讀者에게는本紙發送을中止함

檀紀四二八九年九月十日 東大時報社

內案書 備具材 教
良
弘文堂書店
乙支路四街
特別奉仕

原稿募集
東國詩集 (年刊)第五輯을發刊코 저左記要領에依하여 原稿를 募集하오니 多數應募하기를 바랍니다
記
一、篇數 四篇以上
一、投稿期間 九月三十日限
一、投稿處 學藝部學報編輯室
一、其他
原稿에는必히學年科姓名을明記할것 原稿는一切返還하지않음
學藝部

投稿歡迎
左記와如히많은 投稿를歡迎함
記
一、小說
一、戲曲
一、詩
一、紀行文
一、隨筆
一、내故鄕史蹟·名勝 (可能하면要參考寫眞)
以上枚數任意
一、建設譜(四枚以內)
※注 取捨는本社에 一任 必히原稿紙使用
東大時報社

英文學史
著 목부·드-포름스
東大文理大學長 崔鳳雨 敎授 閔
弘文堂書店 總販
乙支路四街

考試受驗指導方針

民事法 을 中心으로

朴 商 鎰

(1)

高等考試와 法律專攻者와의 關係는 筆者가 約二年前 이미 本紙를 通하여 若干의 示唆를 준 바 있었다 이에 그 骨子를 다시 부연한다면 法律專攻者에 있어서 高等考試는 그 學力의 公證과도 같은 作用을 하는 것이므로 法科生은 公務員의 資格이 公務員(例 法官·檢事等)인 경우에는 勿論이고 구슨 自由業(例 辯護士·著述業等)인 경우라도 高等考試에 合格하였다는 것이 基本的인 要件이되지 않으면 權威를 認定받는 捷徑이라고 할수있다 이런點에있어 法科生은 다른科의 學生과別異의 宿命을 지닌것이라고 볼수있다 即 他科의 學生은 將來의 職業 選擇에 있어서 期必 高等考試에 留意할 必要가 있는것이 아니다 特히 法律家가 되려는경우라면 別問題이지만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法律을 가지고 生活手段을 삼으려면 그 자격이 되는것이다 그러므로 法科生은 高等考試와의 關係는 沿革的으로도 오랜歲月을 거쳐 오는것이다 그 몇 겨울 이르도록 이 高等考試制度가 大體 그리고 同意없이 努力하여야한다 一般的으로 大學生이 獨學者보다 그 工夫에 注力할수 있는 環境을 말한다는 수하게 時間을 準備에 바칠수있다는點이 大學生에 비겨獨學者의경우에는 뒤떠러지기때문에 그의準備期間은 몇해씩이나 걸기지않을수 없게된다 그런데 近來의 大學生가운데에는 職業 民事 訴訟法 判決節次와强 則으로부터 親族相續에 이르기까지 各法域에 對 하여 이미 그 基本 原理 및 民事訴訟法 特 判決節次에 關한理 解로 自體는 決코 다른 科目에 比하여 困難한 것도 아니다 다만 그 範圍가 過多한것은 아니 다 이것이 이것이 가 장 公公然한, 가장 뽈 先入觀이 一掃될날이 온 것으로 믿는다 그 밖에 다른科目도 特히 分 量이 적고 生活된 것 이 많으므로 앞으로 過去의 一掃될날이 온 것으로 믿는다 그 밖에 다른科目도 特히 分 量이 적고 生活된 것 이 많으므로 앞으로 過去의 一掃될날이 온 것으로 믿는다 民事法은